

## ■ 기후변화협약 제 12차 부속기구회의 주요 논의 동향

(2000년 6월 5~16일, 독일, 본)

### ○ 기후변화협약 제 12차 부속기구회의

- 2000년 12월,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 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(Kyoto Protocol)에서 정해진 이행규칙을 확정해야 하는데 따른 세부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제 12차 부속기구회의가 지난 주에 있었음

### ○ 주요 이슈

- 온실가스 산정방식(greenhouse gas accounting) 과 의무사항(liability rule)
  -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산림과 같은 탄소 흡수원을 청정개발메카니즘(clean development mechanism)<sup>1)</sup>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였는데 반해 EU와 일부 개도국들은 산림의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청정개발메카니즘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환경론자들 역시 이러한 요구가 결과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교토의정서의 기본 목적에 배치된다고 주장함
  - 온실 가스의 배출량과 함께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그 방법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음
- 의무준수체제(compliance mechanism)
  - 온실가스 저감 규약이나 이와 관계된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 벌금부과나 신축성체제(flexible mechanism)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안을 검토함
  - 의무준수기구의 구성과 의무준수체제의 적용범위를 협의함
  - 만약 현재의 저감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의 대안으로 미래의 배출권을 차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됨
- 배출권거래제의 신축성체제
  - EU는 이의 적용에 대해 제한을 두고자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강력히 반발함
- 개발도상국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개발 계획을 지원하는 청정개발 메카니즘
  - 열성적인 환경단체들의 주장 때문에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청정개발 메카니즘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, 이 또한 다른 국가들(캐나다, 일본, 프랑스, 오스트레일리아, 미국,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)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힘

### ○ 국제환경단체들의 반응

- 국제환경기구연합(International Coalition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)은 일부 선진국들이 유일한 합의 규약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난함
  - 교토의정서에서는 다가오는 10년 동안 기후변화를 야기 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평균 5.2%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몇몇 선진국들(미국, 캐나다, 일본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)은 산림 조성에 관한 규칙을 이용하여 오래된 산림을 제거한 후 새로

---

1)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임

은 조립을 통해 오염물배출권(pollution credits)을 늘릴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배출량을 15~20% 증가시키려는 구실을 찾고 있다고 지적

○ **시사점**

-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도 각국의 대표들은 일부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만족해 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으로 우리도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기업들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- 산림 조성, 배출권 거래제도 그리고 청정개발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

천 정 용 (02-3669-4099, cildon@hanmir.com)